

#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추이와 특징

## Progress and Special Features in User Instruction of Korean Academic Libraries

김령은(Ryoung-Eun Kim)\*

이제환(Jae-Whoan L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사례 조사를 통해 본 이용자교육 |
| II. 이용자교육의 역사적 추이      | 1. 조사 대상과 방법          |
| III. 기존 통계를 통해 본 이용자교육 | 2. 대표적 양상과 특징         |
| 1. 조사 내용과 방법           | V. 결론                 |
| 2. 대표적 양상과 특징          |                       |

### 초 록

이 논문의 목적은 국내 대학도서관계 이용자교육의 변화 추이와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재의 이용자교육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다. 이용자교육의 변화 추이는 시기별로 나누어 각 시기의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였고, 현재의 이용자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의 외형적 양상과 내용적 실태를 밝혀내는데 비중을 두었다. 논의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기존의 통계자료와 선행연구의 조사결과 그리고 주요 대학도서관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사례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통계자료는 KERIS의 학술정보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대학도서관 통계와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회가 생산한 '이용자교육 조사보고서'의 통계를 활용하였다. 사례 조사는 두 번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이용자교육이 '활발한' 20개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으며, 두 번째는 거점 국립대학인 P대학의 학부생과 소규모 특성화대학인 U대학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키워드: 이용자교육, 도서관교육, 서지교육, 정보활용교육, 정보문해교육, 대학도서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about both historical progress and current situation of user instruction in Korean academic libraries. Emphasis was on identifying and analyzing the special features and limitations of user instruction from the viewpoints of library users as well as those of librarians. To the end, data were collected from three methods: the first tool was such major statistical sources as 'KERIS university library statistics system' and 'Research Reports' by the Korean Private University Library Association. The second was from the results of surveys and interviews with librarians from 20 university libraries. And the third was from the results of surveys with library users in two sample university libraries.

Keywords: Library instruction, User instruction, Bibliographic instruction,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Korean university libraries

\* 울산과학기술원 도서관 사서(rekim@unist.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wleeh@pusan.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7년 11월 20일 •최초심사: 2017년 11월 28일 •게재확정: 2017년 12월 1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153-179, 2017.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12.153]

## I. 서론

197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을 주제로 하여 생산된 국내 연구는 이용자교육의 중요성을 대학도서관계에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해온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적 기반이 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연구의 내용에 있어서 국내 고유의 교육환경과 대학도서관 상황을 고려한 토착적인 접근보다는 도서관선진국의 이론과 경험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과도하였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도 업무 주체인 사서 집단과 교육 대상인 학생집단의 이용자교육에 관한 인식과 행태를 밝혀내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서들에게 유용한 지식 기반을 구축하려면 국내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와 실무적 변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시급하며, 그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령은, 이제환 2017).

이렇듯 이용자교육의 실효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국내 연구가 부족하다보니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실행해온 이용자교육은 1990년대까지도 초보적인 오리엔테이션이나 기초적인 도서관 이용강습의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하여 대학도서관 업무에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이용자교육의 형태와 내용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주제의 문헌DB나 문헌정보시스템에 대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대학도서관이 주관하는 특강이나 세미나 형태의 '특화된' 이용자교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듯 국내 대학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은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교육의 형태와 내용에서 나름대로 진보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에서 이용자교육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부실하고 합리적인 조사결과가 여전히 부족하다보니 국내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업무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작업이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본 연구자는 대학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을 역사적 맥락에서 통시적으로 조망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이 실행되어 온 전체 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특징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서 기존 통계자료와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대학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이 최근 10년 동안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이용자교육의 외형적 양상과 내용적 특징을 가늠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2017년 현재 대학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에서 두드러지는 외형적 속성과 내면적 실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외형적 속

성으로는 이용자교육의 빈도와 참여율, 이용자교육의 종류와 주체,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온라인 형태의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내용적 실태에 있어서는 이용자교육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과 대학구성원(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인식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논의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기존의 통계자료와 선행연구의 조사결과 그리고 주요 대학도서관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기존 통계자료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의 학술정보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대학도서관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선행연구로는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이하 사대도협)가 주관하여 생산한 ‘이용자교육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자체적인 조사는 두 번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첫 번째 조사는 이용자교육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20개 대학의 도서관을 선정하여 사서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조사는 거점 국립대학인 P대학과 소규모 특성화대학인 U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sup>1)</sup>

## II. 이용자교육의 역사적 추이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역사적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sup>2)</sup> 이에 본 연구자는, 비록 시기적으로 제한되긴 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연구들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시기에 따른 양상과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물론 몇몇 선행연구에 대한 내용적인 분석만으로 이용자교육의 시기별 경계를 명료하게 가늠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계의 업무 환경과 서비스 방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초창기로, 1990년대를 성장기로, 그리고 2000년대 이후를 확장기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별 변화 추이와 주요 특징에 대한 논의는 다음 네 가지 항목에 집중하였다: 첫째, 이용자교육의 형태와 방식; 둘째, 이용자교육의 내용; 셋째, 이용자교육에 대한 사서의

1) 20개 대학도서관들은 모기관인 대학의 정체성에 따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각각 10개씩 선정하였다. 비록 20개 대학의 도서관들에 대한 사례조사이긴 하지만, 이용자교육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대학도서관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평가는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가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개 대학도서관들을 비롯하여 P대학도서관과 U대학도서관의 선정 과정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4장의 도입부에 포함하였다.

2) 반면에 북미 대학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 역사와 발전과정을 소개한 연구는 여럿 존재한다: 이영자(1976). 미국 대학도서관 이용지도의 발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 51-78; 최은주(1989). 미국 대학도서관에서의 서지교육의 동향에 관한 고찰. 『경기대학교 논문집』, 23: 63-88; 김병주(1998).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의 발전경향 연구-미국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9: 137-152.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8권 제4호)

인식과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서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 형태와 방식.

먼저, 초창기라 할 수 있는 1980년대 이전까지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이었다(안영주 1965, 강부필 1970, 나성실 1972 & 1976, 강혜영 1981, 김대형 1986, 김성진 1989).<sup>3)</sup> 오리엔테이션의 방식은 대학도서관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대학 차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다른 부처와 함께 ‘도서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안내’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sup> 그러나 그러한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은 도서관 건물을 소개하고 안내서를 배부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도서관자료의 실질적인 이용법을 지도하기보다는 도서관 건물과 이용시간 그리고 자료의 대출 등에 대한 안내에 그쳤던 것이다. 물론 1970년대에 이미 ‘선진화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는 교수의 요청이나 수업과 연계하는 방식 나아가 독립적인 교과목의 형태로 자료이용법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대학도서관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였다.<sup>5)</sup>

이러한 오리엔테이션 형태의 이용자교육에 대해 업무의 주체인 사서들은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사서들은 오리엔테이션 형태의 이용자교육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72년의 나성실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사서의 84.6%, 1981년의 강혜영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사서의 80%, 1986년의 김대형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사서의 85.4%가 그리고 1989년의 김성진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사서의 92.4%가 “기존의 이용자교육이 효과가 없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사서들은 “대규모의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기존의 교육방식으로는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서비스 그리고 자료의 이용법을 숙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당시 많은 사서들은 이미 “오리엔테이션 형태의 이용자교육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성실 1972, 강혜영 1981, 김대형 1986, 김성진 1989)

1990년대로 접어들어서도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교육은 이전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리엔테이션 형태의 단기 교육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비록 여전히 소수의 대학도서관에만 해당하지만, 교육의 형태와 방식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이

3) 1965년에 발표된 안영주의 연구에 의하면, 1964년 현재 18개 4년제 종합대학교 중에서 10개, 그리고 12개 2년제 단과대학 중에서 4개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영주 1965).

4) 1972년에 발표된 나성실의 연구에 의하면, 위의 방식으로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했던 대학도서관이 전체의 74%에 이르렀다(나성실 1972).

5) 가령, 동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서강대학교가 독립적인 교과목 형태로 교육을 실시했다(나성실 1976, 29).

전과는 다른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교육의 형태와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오리엔테이션과 병행하여 소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강이나 세미나 혹은 학과 단위의 특화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이용자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대학도서관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sup>6)</sup> 이를 통해 사서와 이용자가 보다 밀접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개인이나 학과별 이용자의 요구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 또한 증가하였다. 더불어 이용자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여전히 도서관 시설과 소장 인쇄자료에 대한 이용안내가 지배적이었으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전자자료(특히 CD-ROM 형태의 서지DB)의 검색 및 활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첨가되기 시작하였다. 이용자교육의 내용이 보다 풍부해지고 다양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까지도 이용자교육에 대한 사서들의 시선은 여전히 ‘불만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sup>7)</sup> 사서들의 불만은 주로 기존의 이용자교육이 “단선적이고 형식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들은 이전의 그들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용자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sup>8)</sup>

이용자교육의 형태와 방식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가 대학도서관계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로 들어서부터였다. 먼저, 교육의 형태에 있어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에 더해 소수 집단을 위한 도서관이용교육,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위한 서지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의 방식 또한 보다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사서들의 노력이 반영되면서 수업과 연계하여 이용자교육을 실시하는 대학도서관들이 조금씩 증가하였고, 정규 교과목으로 이용자교육을 실시하는 대학도서관들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sup>9)</sup>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서지DB의 이용법에 관한 교육에 더해 리포트를 포함한 각종 논문의 작성법에 대한 교육, 참고문헌 작성법 및 서지관리도구의 이용법에 대한 교육 등이 첨가되었다. 이렇듯 이용자교육의 형태와 방식 그리고 내용이

6) 1997년에 발표된 채명자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대학도서관의 약 52.2%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교육 방식에 더해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교육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채명자 1997).

7) 1993년에 발표된 황미연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대학도서관 사서의 약 76%가 기존의 이용자교육에 대해 “미흡하다”는 견해를 보였다(황미연 외 1993). 이러한 부정적 견해는 채명자의 1997년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는데 조사대상 사서의 약 85%가 기존의 이용자교육에 대해 “그저 그렇다”, “형식적으로 행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채명자 1997).

8) 가령, 황미연 외(1993)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사서의 62%가 “정규과목으로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채명자(1997)의 연구에서도 약 58%가 ‘정규과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2000년에 발표된 박남진의 연구는 조사대상 대학도서관 22개교 중에서 이용자교육을 정규과목으로 가르치는 곳이 전체의 9.1%, 수업의 일부로 가르치는 곳이 전체의 22.7%, 희망자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곳이 전체의 24.2%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박남진 2000).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8권 제4호)

다양해지면서 점차 도서관선진국의 이용자교육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만,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여전히 그들의 이용자교육이 내용적으로는 물론이고 외형적으로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체 정체되어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용자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과거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양태와는 달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관찰된다. 즉, 한편에서는 교육전담 사서의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학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표 1>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시기별 특징

	1960~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교육의 형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희망자 대상 교육 학과별 집단 교육	희망자 개별 교육 소집단 중심 교육
교육의 방식	일회성 단기 교육	비정기 교육 특강이나 세미나(일부) 수업 연계 교육(일부)	비정기 교육 수업 연계 교육(증가) 독립 교과목화(소수)
교육의 내용	도서관 소개 도서관 이용안내	도서관 이용 안내, 도서관서비스 소개 OPAC 이용법 교육 서지DB 이용법 교육	도서관 이용 안내 OPAC 이용법 교육 인터넷 정보탐색 교육 주제별 DB 이용 교육 논문작성법 교육 참고문헌 작성법 교육 서지관리도구 이용 교육 표절방지/저작권 교육
사서의 평가	불만족	불만족	불만족
개선을 위한 사서의 요구	정규 교육 독립 교과목	정규 교육 독립 교과목	독립 교과목(감소) 전담사서 확충 교육역량 제고 교육환경 개선 교육홍보 강화

정리하면, 1960년대 이래 1990년대 전반기까지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주요 형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었고, 교육의 방식은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단기교육에 머물러 있었다. 교육의 내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도서관 시설에 대한 소개와 장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용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여전히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교육 혹은 집단 교육이 특강이나 세미나 형식으로 등장하였다. 더불어 기존의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이용자교육을 시행하는 대학도서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교육의 내용 또한 다양해져서 OPAC 이용법이나 서지DB의 이용법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형태와 방식 그리고 내용의 변화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학도서관계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교육의 내용도 더욱 광범위해져서 인터넷 정보

탐색 교육과 주제별 전문DB의 이용 교육은 물론이고 리포트나 논문의 작성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교육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사서의 의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인 대학구성원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율은 ‘이용자교육의 비활성화’를 만성적인 상태로 고착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도서관이 초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던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그들의 이용자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용자교육을 담당해온 사서들이 교육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전개해 왔다는 사실이다. 국내 대학의 거시적 환경과 우리 사회의 보편적 교육철학이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교육 업무를 담당해온 사서들은 그들의 교육이 도서관선진국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이유를 외부에서 보다는 내부에서 찾아내고자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표 1>에 기술해 놓았듯이, 2000년대 이후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고민하고 있는 사서들은 “이용자교육을 독립 교과목으로 만들자”는 전래의 다소 ‘비현실적인’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교육전담 사서의 확충’, ‘교육전담 사서의 역량 제고’, ‘이용자교육 환경의 개선’, ‘이용자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와 같은 보다 시급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물론 그러한 노력이 아직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대학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용자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이용자교육에 대한 인식과 행태에 있어서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2000년대 이래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을까? 다음 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대학도서관계가 이용자교육 관련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이용자교육의 변화 양상과 주요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Ⅲ. 기존 통계를 통해 본 이용자교육

#### 1. 조사 내용과 방법

최근 10년 동안 국내 대학도서관이 시행해온 이용자교육의 ‘대표적인 양상과 특징’을 밝혀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이용자교육의 빈도(즉, 실시 횟수), ②이용자교육의 참여율(가령,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규모와 비율 등), ③이용자교육의 종류(가령, 오리엔테이션, 도서관교육, 서지교육 등), ④교육프로그램의 형태(가령, 도서관이 주도하는 독립 프로그램, 도서관이 개설한 독립 교과목, 대학의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

대학의 다른 교과목과의 통합 등), ⑤교육프로그램의 강습 내용, ⑥교육프로그램의 강습 방법, ⑦교육프로그램의 강습 주체(즉, 전담 사서에 의한 직접교육의 비율 등), ⑧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여부와 수준, ⑨운영주체인 사서의 ‘이용자교육’에 대한 인식(가령, 이용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스스로 생각하는 필수 업무역량, 업무역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의 경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참여 의지 등), 그리고 ⑩교육대상인 대학생의 이용자교육에 대한 인식.

이상의 10개 항목에 관한 기본 통계를 수집하고자 본 연구자가 활용한 소스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KERIS에서 관장하고 있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에 수록된 대학도서관 관련 통계<sup>10)</sup>와 2017년에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생산한 ‘사대도협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이다.<sup>11)</s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현재, 첫 번째 통계 소스인 KERIS의 학술정보통계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대학도서관 관련 통계는 9년(2008-2016)치이다. 그 중에서 이용자교육에 관한 통계는 “직접교육 실시횟수<sup>12)</sup>”, “직접교육 참여자수”, 그리고 “온라인교육 참여자수” 등 3개 항목뿐이다. 이처럼 KERIS의 통계DB와 「분석 자료집」<sup>13)</sup>에는 기초적이고 성과중심적인 데이터만이 수록되어 있을 뿐, 대학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이용자교육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는 결여하고 있다. 그에 비해 사대도협이 생산한 「2017년 사대도협 연구보고서」에는 본 연구자가 앞서 설정한 10개 항목에 대한 모든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16년 현재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모습과 한계를 가늠하는데 있어 유용한 데이터를 담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이 두 자료에 수록된 관련 통계를 활용하되, 본 연구자가 설정한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를 재산출, 재분류, 재분석하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대학도서관이 시행해온 이용자교육의 대표적인 양상과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대표적 양상과 특징

### 가. 이용자교육의 빈도와 참여율

다음 <표 2>는 KERIS가 제공하는 2008년에서 2016년까지의 이용자교육 관련 통계 중에서 연평균 ‘직접교육 실시횟수’를 활용하여 ‘도서관 당 평균 실시횟수’를 재산출해 놓은 것이

10) 그 중에서 ‘이용자교육’에 관한 통계만을 선별하여 재분석한 후 활용하였다.

11)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가 주관하여 발간한 이 연구보고서는 국공립 및 사립대학도서관 협의회 소속 회원교의 사서를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조사는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로써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응답자는 255명(유효 응답자 252명)이었다. 수록 통계 중에서 ‘앞서 설정한 10개 항목에 관한 논점 전개’에 필요한 통계만을 선별하여 재분석한 후 활용하였다.

12) KERIS의 대학도서관 통계에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서가 면대면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직접교육’으로 명하고 있다.

13) 이러한 제한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0년부터 매년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집에는 이용자교육과 관련하여 두 가지 ‘분석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대학의 설립주체에 따른 재학생의 이용자교육 참여율”과 “대학의 규모에 따른 재학생의 이용자교육 참여비율.”



다. 표에 나타나듯이, 대학도서관이 실시하는 직접교육의 횟수는 2008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sup>14)</sup> 전체 횟수는 물론이고 평균 횟수에 있어서도 증가 추세는 뚜렷하다. 이 통계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2016년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들은 연평균 약 42회의 이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빈도는 사대도협에서 조사한 통계와는 대조적이다. 물론 두 조사의 방법이 달라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사대도협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들은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 이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사대도협 2017, 80).

<표 2> 이용자교육의 직접교육 실시횟수

	직접교육 실시횟수		
	전체	도서관수	평균
2008	4,597	164	28.0
2009	9,971	175	57.0
2010	7,280	178	40.9
2011	6,447	181	35.6
2012	7,318	205	35.7
2013	7,049	207	34.1
2014	7,479	205	36.5
2015	7,598	183	41.5
2016	8,153	193	42.2

출처: KERIS 학술정보통계시스템(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계산출)

그렇다면 2016년 현재, 주1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빈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할까? 이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이용자교육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도서관선진국의 사례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3>의 데이터는 미국 ACRL 소속 대학도서관의 관련 통계를 국내 주요 대학도서관<sup>15)</sup>의 관련 통계와 비교해 놓은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ACRL 소속 대학도서관들이 실시한 이용자교육의 평균횟수는 국내의 주요 대학도서관들이 실시한 이용자교육의 평균횟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처럼 표의 데이터는 2016년 현재, 국내 주요 대학도서관들의 이용자교육은 양적 측면에서 북미 소재 주요 대학도서관들의 이용자교육에 비해 약 1/6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14) <표 2>에 정리한 ‘직접교육의 실시횟수’에서 2009년과 2010년의 데이터는 전후의 변화가 과도할 정도로 급격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조사해 보니, 당시 통계조사에 참여한 특정 대학도서관에서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던 사실을 찾아내었다. KERIS의 통계시스템은 ‘통계조사에 참여한 대학도서관이 입력한 데이터를 검증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신뢰성에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15) 국내 주요 대학도서관은 ‘재학생수 2만 명 이상의 상위 20개 대학의 도서관’을 지칭한다.

〈표 3〉 ACRL 대학도서관과 국내 주요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실시횟수<sup>16)</sup>

	ACRL 대학도서관		국내 주요 대학도서관	
	1위 도서관의 실시횟수	연평균 실시횟수	1위 도서관의 실시횟수	연평균 실시횟수
2010년	3,686	990	422	137
2012년	3,148	1,009	503	157
2013년	2,821	1,009	459	160
2014년	3,060	1,024	470	163
2015년	2,875	1,045	335	154
2016년	2,875	1,045	440	182

출처: KERIS 「통계 분석 자료집」

이제 우리의 시각을 교육수요자에게로 옮겨보자. 〈표 4〉는 KERIS가 제공하는 2008년에서 2016년까지의 이용자교육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의 연평균 규모와 비율’을 다시 산출해 놓은 것이다. 표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전체 재학생의 약 13.8%가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이용자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학생의 규모와 비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2008년에 비해 참여자 수는 약 1.91배, 참여율은 약 1.7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의 규모와 비율

	교육 참여자수	재학생수	교육 참여율
2008	126,686	1,625,089	7.8
2009	146,252	1,620,434	9.0
2010	166,596	1,548,328	10.8
2011	192,778	1,706,028	11.3
2012	212,280	1,794,049	11.8
2013	228,280	1,810,052	12.6
2014	236,019	1,827,215	12.9
2015	244,837	1,799,457	13.6
2016	242,082	1,756,103	13.8

출처: KERIS 학술정보통계시스템(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재산출)

#### 나. 이용자교육의 종류, 내용, 형태 그리고 방법

그렇다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교육 빈도와 참여율의 증가세를 근거로 “국내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도 좋을까? 아마도 이에 대한

16) 2011년도 통계는 KERIS가 2011년도에 「통계 분석 자료집」을 미발간한 관계로 누락되어 있다.

답변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형태, 내용, 방법 그리고 운영주체 등과 같은 ‘교육의 속내’에 대한 객관적 검증 이후로 미루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KERIS의 통계자료에는 이용자교육의 속내를 가늠할 수 있는 이러한 항목에 관한 통계가 부재하다. 대학도서관의 업무활동에 관한 국가통계시스템에 업무활동의 내역은 차치하고 변화 추이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데이터조차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그나마 사대도협 보고서에는 비록 2016년도 데이터에 국한되어 있지만, 대학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이용자교육의 속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관련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논의는 사대도협 보고서의 관련 통계를 본 연구자가 설정한 10개 항목에 따라 재분류하고 재산출한 데이터에 근거한다.

먼저, <표 5>의 데이터는 사대도협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255명(유효 답변 252명) 사서들이 그들의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유형화’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의 데이터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이 ‘도서관 오리엔테이션’과 ‘도서관이용교육’ 그리고 ‘서지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서 근자에 들어서 ‘정보문해교육(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에서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참고문헌 작성 및 서지관리도구 이용법(EndNote, RefWroks 등)’을 강습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이 전체의 80%를 상회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논문작성법’이나 ‘연구윤리교육’ 등 고급 단계의 이용자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전체 대학도서관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사대도협 보고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은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서 내용적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 진다.

다음, 이용자교육의 속내를 가늠하는데 있어 중요한 항목인 ‘교육프로그램의 형태(가령, 도서관 주도의 독립 프로그램, 도서관 개설 독립 교과목, 타교과목 연계 프로그램, 타교과목 통합 프로그램 등의 구성 비율)’에 관해서는 기존 자료에 부분적인 데이터만 존재한다. 구체적으

<표 5>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종류와 내용

교육의 종류	교육의 내용	실시비율
오리엔테이션	기본적인 이용교육 (대출·반납, 홈페이지, 도서관 서비스 안내 등)	95.4
도서관이용교육	온라인목록 이용법 인터넷 정보검색법 (웹, 학술정보, 동향정보 등)	92.8
서지교육	특정 전자정보원 이용법 (웹DB, 전자저널, e-Book 등)	96.7
정보문해교육	참고문헌 작성 및 서지관리도구 이용법 (EndNote, RefWroks 등)	80.4
	연구윤리 관련 교육 (연구윤리 개요, 논문표절방지도구 이용법 등)	43.1
기타	논문작성법 (논문작성법 및 관련 도서관 서비스)	50.3
	프로그램 이용교육 (문서작성, 통계분석, 이미지편집 등)	15.7

출처: 「사대도협 연구보고서」 (p.63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교육의 종류에 따라 재분류)

로, 사대도협 보고서에는 11개 주요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수집한 ‘교육프로그램의 형태’에 관한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다.<sup>17)</sup> 그에 따르면, 2016년 현재, 11개 대학도서관 중에서 도서관 주도의 독립 프로그램, 도서관 개설 독립 교과목, 타교과목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전무하며, 6개 대학도서관이 ‘타교과목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교육프로그램의 방법’에 관한 변화 추이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또한 KERIS의 통계자료는 물론이고 사대도협의 연구보고서에도 관련 데이터는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여부’와 관련하여 KERIS의 통계자료에는 ‘온라인교육 참여자수’에 관한 기초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양상과 특징을 가늠하기에는 통계수치의 정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sup>18)</sup>

#### 다. 교육프로그램의 주체

대학도서관이 운영하는 이용자교육과 관련하여 도서관계는 물론이고 학계의 가장 큰 관심은 운영주체의 정체성에 쏠려있다. 즉,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의 문제는 대학도서관 사서의 직업적 가치와 위상에 결정적인 영향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인용한 KERIS의 통계에서는 사서에 의한 ‘직접교육의 횟수’를 수록하고 있는데(<표 2> 참조), 표의 내용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교육의 주체로서 사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KERIS의 통계에는 ‘사서 이외의 교육 담당자’에 관한 데이터가 부재하다. 그러다보니 사서가 이용자교육의 주체로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한 궁금증은 사대도협 보고서에 수록된 관련 통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조사에 참여한 대학도서관의 약 70%가 이용자교육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2016년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교육의 주체로서 사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약하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 라. 이용자교육에 대한 사서의 인식

그렇다면 대학도서관 사서는 이용자교육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교육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먼저, KERIS의 통계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그것도 간접적인) 데이터만을 담고 있다. 즉, ‘직원교육 현황’에 관한 통계를 담고 있는데, 그나마 그 내용은 ‘교내교육’, ‘교외교육’, ‘해외연수’에 참여

17) 실태조사에 포함된 11개 대학도서관은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이다.

18) KERIS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타 형태의 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도서관의 온라인교육 참가자수는 다음과 같다: 2008년 48,874명, 2009년 126,124명, 2010년 124,781명, 2011년 233,654명, 2012년 226,525명, 2013년 225,822명, 2014년 218,656명, 2015년 217,774명, 2016년 188,961명. 각주 14의 내용 참조.

한 ‘시간’과 ‘인원’과 같은 지극히 행정적인 데이터에 불과할 뿐, 사서가 어떤 업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등에 관한 데이터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사대도협 보고서에는 사서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의 결과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식조사에 참여한 사서의 94.8%가 “정보문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아울러 95.2%가 “정보문해교육 분야에서 사서의 직무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약 87.3%가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내 정보문해교육 교수법 개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직무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가?”에 대해 “특정 전자정보원의 이용법”을 1순위로 꼽고 있어, 이용자교육 담당 사서에 게 가장 필요한 역량을 ‘전자정보원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sup>19)</sup>

#### 마. 이용자교육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인식

본 연구자가 관심을 둔 마지막 항목은 ‘교육의 대상자인 대학구성원의 기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교육 대상자 혹은 참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필수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러나 KERIS의 통계조사에는 관련 데이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대도협 보고서에는 유용성이 낮은 ‘유사 데이터’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즉, 사대도협의 보고서에는 이용자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조사의 결과가 아니라 ‘사서가 생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호응도’를 간접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어서 그 의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sup>20)</sup> 그런 가운데 동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사서들은 이용자가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참고문헌작성법, 일반적인 정보탐색법, 논문작성법, 특정 전자정보원 이용법, 연구윤리 관련 교육, 도서관 이용교육의 순으로 교육참가자의 호응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서관 이용교육과 같은 이용자교육의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참가자의 호응이 높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2016년 현재, 대학도서관계가 운영하고 있는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내재해 있는 본질적인 한계와 문제점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정리하면, 기존의 통계조사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최근 10년 동안의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변화 추이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자의 시도는 절반의 성취에도 미치지 못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정보소스인 ‘KERIS의 통계자료’가 부실하다보니 이용자교육의 외형적 양상조차 가늠하기 어려웠으며, 그나마 관련 통계자료를 일부나마 포함하고 있는 사대도협 보고서에는 2016년의 현황 데이터만 수록되어 있어서 이용자교육의

19) 그 외에 사서들이 직무교육의 내용으로 선호하는 것은 “정보탐색법”, “참고문헌 작성 및 서지관리도구 이용법”, “논문작성법”, “연구윤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용교육”의 순서로 나타났다.

20) 사서들은 정보문해교육에 대해 이용자가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인식(71.0%)하고 있다(사대도협 2017, pp.106-107)..

변화 양상과 추이를 가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사대도협 보고서의 통계는 조사대상이 갖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수집한 데이터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마저 안고 있었다.<sup>21)</sup> 이렇듯 기존 통계자료가 갖는 한계를 다소나마 넘어서서, 2017년 현재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에서 두드러지는 양상과 특징을 세부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다음 장부터는 자체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IV. 사례 조사를 통해 본 이용자교육

### 1. 조사 대상과 방법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체적인 조사는 두 번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 번째 조사는 이용자교육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20개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고,<sup>22)</sup> 두 번째 조사는 P대학과 U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20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앞서 설정한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용자교육의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첫째는 20개 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이용자교육 업무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다. 둘째는 개별 도서관 홈페이지의 ‘직원소개 및 업무’ 항목을 조사하여 이용자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22명의 인력을 확인하고,<sup>23)</sup>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는 20개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사서 572명의 명단을(이중에는 앞서 언급한 22명도 포함되어 있다) 확보하고, 그들이 평소 ‘이용자교육에 대해

21) 설문조사의 응답자를 분석해 보면, 이용자교육을 담당한 적이 없는 응답자가 99명으로 전체 응답자(252명)의 39.3%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교육 경험이 없는 사서의 답변을 전체 답변에 포함하여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다보니 분석결과의 의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2) 조사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선정 과정에서 본 연구자가 활용한 지표는 ‘교육의 빈도’이었다. 이용자교육의 활성화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에서 2017년 현재 활용 가능한 지표 중의 하나는 KERIS 통계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직접교육 실시횟수’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KERIS의 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입력된 ‘직접교육 실시횟수’를 세밀히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에 관련 통계를 빠짐없이 입력한 대학도서관을 선별해본 결과, 25개의 국공립대학도서관과 138개의 사립대학도서관을 확인하였고, 그들이 9년 동안 실시한 ‘직접교육의 횟수’를 대학도서관별로 합산한 후, 그들 중에서 상위 10위내에 포함되는 대학도서관을 설립주체별로 10개씩, 모두 20개를 선정하였다.

23) 이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첫째,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교육’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업무 담당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도서관이 다수 있었다. 둘째, 교육 담당자가 2명~3명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누구에게 설문지를 발송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에 해당 대학도서관에 직접 전화하여 담당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한편, 20개 대학 중에서 캠퍼스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2개 대학은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각 캠퍼스에서 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사서를 포함하였다. 이로써 20개 사례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사서로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22명이었다.

갖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고자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136명이 응답하여 약 24%의 회수율을 보였다.

한편, 피교육생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sup>24)</sup> 첫 번째 설문조사는 20개 사례 대학도서관 중에서 대규모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문헌정보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P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모두 1,429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학부생은 1,013명(71%), 대학원생은 416명(29%)이었다. 그들 가운데 P대학교도서관이 운영하는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573명(약 40%)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이용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소규모 과학기술특성화 국립대학으로 문헌정보학과가 없는 U대학교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600여명의 재학생 중에서 295명(약 18%)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고, 그들 가운데 이용자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95명(약 32%)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이용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 2. 대표적 양상과 특징

### 가. 이용자교육의 빈도와 참여율

<표 6>는 사례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한 분석과 KERIS의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이용자교육 활동과 관련한 기본 데이터(직접교육 횟수, 사서수, 재학생수, 문헌정보학과의 유무 등)를 수집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의 데이터는 이용자교육의 실시횟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앞서 논의했던 국내 대학도서관들의 평균 '직접교육 횟수'에 비교할 때 사례 대학도서관들의 직접교육 횟수가 월등하게 많다는 사실이다. 가령,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가장 많은 교육을 실시한 2016년도의 평균 교육횟수가 42.2회이지만, 이 횟수는 사례 대학도서관들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연평균 교육횟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약한 수치이다. 그러나 사례 대학도서관들의 상대적으로 활발해 보이는 교육활동도 앞서 인용한 ACRL 대학도서관의 교육활동(<표 3> 참조)에 비해서는 비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빈약한 상태에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표 6>의 통계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지만 국공립대학도서관들의 빈약한 교육활동

24)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에 대한(특히 이용자교육 경험이 있는)학생들의 인식과 평가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컸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위한 학생들의 이메일을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협조를 요청한 대학도서관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학생들의 이메일 제공이나 설문지 발송에 매우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대학구성원의 이용자교육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즉, 본 연구자들이 소속한 2개 대학도서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협조를 받는데도 약 한 달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설문지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동의를 표시한 대상자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6> 사례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관련 현황(2008년~2016년의 연평균 수치)

순위	국공립대학도서관					사립대학도서관				
	대학명	직접교육 횟수	사서수	재학생수	문헌정보학과	대학명	직접교육 횟수	사서수	재학생수	문헌정보학과
1	서울대	259	105	27,253	×	연세대	383	79	38,419	○
2	부산대	185	46	29,591	○	고려대	294	61	37,270	×
3	전남대	122	37	26,642	○	이화여대	253	53	21,587	○
4	전북대	115	32	22,799	○	성균관대	217	51	26,320	○
5	충남대	78	31	24,561	○	경희대	195	47	31,924	×
6	교원대	77	12	5,714	×	한양대	163	48	33,973	×
7	인천대	63	10	12,829	○	가톨릭대	136	22	11,060	×
8	경북대	59	51	30,171	○	울산대	125	24	15,579	×
9	안동대	50	12	6,582	×	상명대	125	18	14,540	○
10	부경대	44	20	19,539	×	서강대	117	24	11,849	×

출처: KERIS 학술정보시스템 & 20개 사례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sup>25)</sup> 사립대학도서관이 국공립대학도서관보다 이용자교육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점은 표의 통계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10개의 사립대학도서관은 모두 연평균 최소 100회 이상의 직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비해 10개의 국공립대학도서관 중에서 연평균 100회 이상의 직접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주목 하였던 대학의 규모<sup>26)</sup>와 이용자교육의 빈도 사이에서는 특별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으며, 문헌정보학과의 설치 여부 또한 이용자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국내 대학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 분석에서 ‘재학생의 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은 2008년의 7.8%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13.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표 4> 참조). 이에 비해 사례 대학도서관들의 경우, <표 7>에도 나타나듯이, 2016년도 국공립대학도서관의 교육 참여율(평균)은 17.1%, 사립대학도서관의 교육 참여율은 21.9%(평균)로 국내 대학도서관들의 평균 교육 참여율보다 높은 상태이다. 특히, 서강대학교 도서관이나 이화여대 도서관처럼 1960년대부터 이용자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대학도서관들의 이용자교육 참여율은 월등히 높았다. 이에 더해 문헌정보학과의 설치 여부에 따른 교육 참여율의 차이 또한 주목할 만하다. 가령,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와 같이 문헌정보학과의 설치 역사가 긴 대학의 도서관들이 고려대나 한양대처럼 문헌정보학과의 없는 대학

25) 사립대학도서관들의 교육활동은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ACRL 대학도서관의 교육활동에 비해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1/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도서관은 ACRL 대학도서관에 비해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1/23에 불과한 실정이다.

26) 대학의 규모별 구분은 KERIS가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자료집』에서 사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즉, 대규모 대학은 재학생수 10,000명 이상, 중규모 대학은 재학생수 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소규모 대학은 재학생수 5,000명 미만이다.



<표 7> 사례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참여율(2016년)

순위	국공립대학도서관				사립대학도서관			
	대학명	직접교육 참여자수	재학생수	교육 참여율	대학명	직접교육 참여자수	재학생수	교육 참여율
1	서울대	5,498	28,630	19.2	연세대	11,224	39,152	28.7
2	부산대	8,301	29,618	28.0	고려대	3,581	37,308	9.6
3	전남대	2,765	24,944	11.1	이화여대	7,088	21,552	32.9
4	전북대	4,738	22,932	20.7	성균관대	6,256	26,654	23.5
5	충남대	3,280	24,200	13.6	경희대	7,581	33,327	22.7
6	교원대	1,814	5,709	31.8	한양대	3,105	33,065	9.4
7	인천대	996	13,822	7.2	가톨릭대	2,816	10,881	25.9
8	경북대	4,961	30,296	16.4	울산대	2,561	14,544	17.6
9	안동대	1,386	7,057	19.6	상명대	3,903	14,952	26.1
10	부경대	1,721	19,811	8.7	서강대	4,903	11,174	43.9
	합계	35,460	207,019	17.1	합계	53,018	242,609	21.9

출처: KERIS 학술정보통계시스템

의 도서관들에 비해 교육 참여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공립대학도서관의 경우 이러한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말이다.

#### 나. 이용자교육의 종류, 내용, 형태 그리고 방법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용자교육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자는 20개 사례 대학도서관들이 과거 시행했거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별 홈페이지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 직접 분석하였다. 먼저, <표 8>의 내용은 20개 사례 대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의 종류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접속한 홈페이지의 ‘이용자교육 안내’ 항목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용자교육 안내’ 항목에 게시된 내용만으로는 사례 대학도서관이 운영하는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례 대학도서관들이 실제로 운영해온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는 ‘이용자교육 안내’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메뉴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을 위한 ‘교육신청’ 메뉴에는 교육을 완료한 이용자교육 프로그램들이 누적되어 보관되어 있었다.<sup>27)</sup> <표 9>는 20개 사례 대학도서관들 중에서 ‘교육신청’ 메뉴에 누적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비교적 상세한 서울 대학도서관의 자료를 발췌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다.

27) 도서관에 따라 ‘교육신청’ 메뉴에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교육프로그램들이 누적되어 있었다.

〈표 8〉 사례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의 ‘이용자교육 안내’ 항목의 내용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안내’의 내용
국공립	서울대학교	①정기교육 ②출장교육(강의지원포함) ③논문작성Basic(학내 연구자의 논문작성 1:1 맞춤 교육)
	전북대학교	①도서관 이용교육 ②주제별 맞춤형 이용교육 ③EndNote 이용교육 ④외국인 도서관이용교육
	인천대학교	①학술정보 활용교육 ②전자정보 이용교육 ③도서관 오리엔테이션
	경북대학교	①Web-DB교육 ②도서관 이용교육
	부경대학교	①신입생 오리엔테이션 ②학술 Web DB이용교육
사립	연세대학교	①도서관 이용교육 ②학술정보활용교육 ③수업지원교육, ④논문작성 및 투고 교육, 공개특강
	고려대학교	①학술DB ②서지관리 ③멀티미디어 ④일반
	경희대학교 <sup>28)</sup>	①학부생 정기교육 ②대학원생 논문자료조사법 ③외국인학생 이용교육 ④정기 DB교육 ⑤후마니타스 강의연계 교육 ⑥기타(신입 교원 OT, 대학원 신입생 OT)
	서강대학교	①정규교육(특강, 학술DB) ②수업연계교육 ③소규모그룹교육

〈표 9〉 서울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의 ‘교육신청’ 메뉴에서 발췌한 교육프로그램

대학도서관	교육프로그램명
서울대학교 <sup>29)</sup>	대학원생(신입생) 오리엔테이션 Library Orient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 Scholars 국내 학술정보 검색 구글스칼라 30분 교육 국내외 학위논문DB 검색 SCI급 논문과 저널 활용방법 전문학술지로 시작하는 선행연구조사(SCIE/SSCI/AHCI 파워 활용) 한중일 DB 활용법 KCI 활용법 국가통계의 활용 특허실용 정보검색 및 특허정보를 활용한 특허맵 내 논문에 날개달기 논문 제대로 쓰기(전문가특강) 미소장자료 입수방법 연구노트의 올바른 작성 및 활용 등

두 표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사례 대학도서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용자 교육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은 사대도협 보고서의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에 있어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도서관이용교육, 그리고 서지DB교육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도 사대도

28)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이 필요했다. 이에 이용자교육 담당사서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 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29)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7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교육프로그램 목록의 일부이다.

협 보고서의 내용과 유사하게 주제별 학술정보원(DB)의 이용법과 서지관리도구의 사용법에 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프로그램의 형태에 있어서는 사대도협 보고서의 내용과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sup>30)</sup> 물론,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처럼 사례 대학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운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형태는 ‘도서관 주도의 독립 강좌’이었지만, 20개 중에서 19개 대학도서관이 ‘타교과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그들만의 특징으로 부각되었다.<sup>31)</sup> 한편, 기존의 통계자료나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교육프로그램의 방법’에 있어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사례 대학도서관의 경우에 교육프로그램에서 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30~50%인 곳이 가장 많았다. 사례 대학도서관의 약 82%는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공간을 갖추고 있었으며, 약 68%는 실습용 컴퓨터 등을 독자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0〉 사례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전용 공간과 실습용 컴퓨터 비치 현황

	있다(비율)	없다(비율)
전용 교육공간	81.9	18.1
실습용 컴퓨터	68.2	31.8

이용자교육의 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자가 마지막으로 주목한 항목은 ‘온라인 교육의 제공 여부와 내용’이었지만 기존의 통계자료나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사례조사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 대학도서관들의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온라인 이용자교육의 제공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통적인 의미의 도서관이용교육(즉, 도서관 시설과 장비 그리고 장서의 이용법 등)을 온라인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오직 상명대도서관만이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이외의 나머지 도서관들에서는 외부의 전자정보원 업체들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서지관리 프로그램이나 학술DB 이용법에 관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이용자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내용도 방법도 부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30) 표에는 부재하지만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면담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31) 구체적으로, 학부 신입생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글쓰기’ 수업과 연계한 교육 형태가 보편적이었는데, 가령, 연세대학교 도서관은 2002년부터 도서관 자체의 이용법 강좌를 운영하기보다 학부 신입생의 필수과목인 ‘글쓰기’ 강좌에 연계하여 강좌마다 2시간씩의 도서관이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도서관 또한 학부생의 필수과목인 ‘글쓰기’ 수업과 연계한 도서관이용교육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 교육프로그램의 주체

앞서 논의한 사대도협 연구보고서는 국내 대학도서관 중에서 이용자교육을 위해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도서관의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례로 선정한 20개 주요 대학도서관의 실태는 어떠할까? 조사에 참여한 사례 대학도서관들의 경우,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사서가 직접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외부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약 20%인 것으로 파악되었다.<sup>32)</sup> 이처럼 이용자교육이 활발한 주요 대학도서관 일수록 사서에 의한 직접교육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표 11> 이용자교육을 위한 사서와 외부강사의 활용 현황 (사례조사)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이용자교육에 사서가 직접 참여	21(95.5)	10(100.0)	11(91.7)
이용자교육에 외부 인력을 활용	20(90.9)	10(100.0)	10(83.3)

그러나 이러한 추론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소수에 불과한 교육 전담 사서가 어떻게 대부분의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직접교육’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은 <표 12>의 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다. 사례 대학도서관들의 경우, 교육전담 사서 이외에도 다수의 일반사서들이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의 데이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도서관의 규모(그리고 사서의 수)에

<표 12> 이용자교육에 참여하는 일반사서의 수<sup>33)</sup>

참여 사서수	전체	국공립	사립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0	3(13.6)	2(20.0)	1(8.3)
1	3(13.6)	2(20.0)	1(8.3)
2	4(18.2)	1(10.0)	3(25.0)
3	2(9.1)	0(0.0)	2(16.7)
4	4(18.2)	2(20.0)	2(16.7)
5	2(9.1)	0(0.0)	2(16.7)
6	1(4.8)	1(10.0)	0(0.0)
7	1(4.8)	1(10.0)	0(0.0)
12	1(4.8)	0(0.0)	1(8.3)
20	1(4.8)	1(10.0)	0(0.0)
합계	22(100.0)	10(100.0)	12(100.0)

32) 이에 비해 앞서 인용한 사대도협 보고서에는 이용자교육에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만 있고, 시행하는 전체 교육 가운데 몇 퍼센트를 외부 인력이 맡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부재하다.

33) 사례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사서의 수를 직접 기술한 것이다.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2~5명의 일반 사서들이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개의 대학도서관에서는 10명이 넘는 일반사서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용자교육에 대한 사서의 인식

이 항목과 관련하여 사례조사에 참여한 사서의 거의 모두가(96.3%)가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대도협외의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사서의 94.8%가 “이용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사례조사에 참여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이러한 인식은 그들의 71.3%가 “도서관에 재직하는 동안에 업무 담당자 또는 강사로서 이용자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약 67%가 “향후에도 이용자교육의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한 답변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처럼 사례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대학도서관의 핵심 서비스로서 그리고 그들의 핵심 업무로서 이용자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고서비스 분야의 주요 교재에 따르면 교수전략과 방법에 능숙하고 지도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잘 아는 것이야말로 사서가 교육자로서의 역할에 성공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장혜란 2014). 그렇다면 사례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이용자교육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을까? <표 13>의 데이터는 이 질의에 대한 사례 도서관 사서들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즉, 그들이 교육 담당 사서로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정보자료에 대한 지식’이었으며, 그에 더해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력’과 ‘강의를 위한 소통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에 비해 ‘교육이론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서는 소수에 불과하여 교육의 이론적인 요소보다는 실무적인 요소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4)</sup>

<표 13> 교육자로서의 사서 역량에 대한 인식

업무 역량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종합순위
교육프로그램 기획력	17.6	34.6	34.6	13.2	2
정보자료에 대한 지식	45.7	25.7	17.6	11.0	1
강의를 위한 소통 능력	31.6	33.1	27.9	7.4	3
교육이론에 대한 지식	5.1	6.6	19.9	68.4	4

34) 사서들의 이러한 인식은 2011년에 발표된 이제환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밝혀낸 바 있다. 즉, “이용자교육을 담당하려면 자신의 역량을 보완하는 것이 절실하며, 무엇보다도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능력”, “정보자료에 대한 지식”, 그리고 “강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교육자에게 필요한 “교육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지식”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인 사서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이용자교육을 ‘교육 활동’으로 보다는 ‘교습 행위’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이제환 2011, 21).

이어지는 의문은 교육 담당 사서들은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필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표 14>의 데이터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사례조사에 참여한 사서들 중에서 이용자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8%에 불과하였으며, “도서관계의 직무교육에서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약 37%에 불과하였다. 특히, “학교와 현장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5%에 달하여, 교육 담당 사서의 거의 절반이 이용자교육의 기획과 실행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조차 없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4> 이용자교육 업무를 위한 전문 교육과 훈련 경험

답변 내용	비율(%)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 배운 적이 있다	17.9
도서관계의 직무교육에서 배운 적이 있다	37.1
학교와 현장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다	45.0
합계	100.0

나아가 사서들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과의 정규교육과정이 도서관 현장에서 이용자교육 업무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더니, 절반을 넘는 약 55%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표 15>에 나타나듯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약 17%에 불과할 정도로 문헌정보학 정규교육과정의 유용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15> 문헌정보학 정규교육과정의 유용성 평가

답변 내용	빈도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5	11.0
그렇지 않다	60	44.1
보통이다	38	27.9
그렇다	18	13.2
매우 그렇다	5	3.7
합계	136	100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서들은 그들의 답변이 ‘부정적인’ 이유로 “강좌의 내용이 이론적이어서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더불어 “관련 강좌가 전혀 없거나 개설되지 않았다”라는 답변과 “담당 교수의 전문성이 부족하였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표 16> 참조). 이처럼, 관련 강좌의 부족, 강좌의 내용적 한계, 그리고 전공 교수의 부족

등이 문헌정보학 정규교육과정의 한계이자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표 16〉 문헌정보학 정규교육과정의 유용성에 관한 부정적 평가 이유

답변 내용	비율	순위
강좌가 이론 위주로 활용성이 부족하였다	48.5	1
관련 강좌가 전혀 없거나 개설되지 않았다	35.0	2
담당 교수의 전문성이 부족하였다	14.6	3
기타	1.94	4

그들은 또한 교육 담당 사서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용자교육 관련 직무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대학도서관계는 물론이고 도서관계 전체 차원에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되, 교육 담당 사서에 대한 이용자교육 직무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규모가 작고 사서가 적은 대학도서관에서는 직무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를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한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직무교육 정책과 훈련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 이용자교육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인식

〈표 17〉과 〈표 18〉의 데이터는, 앞서 조사방법에서도 밝혔듯이, P대학의 학부생들과 U대학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참여했던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해 놓은 내용이다.

〈표 17〉 도서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추천 의향

답변 내용	P 대학		U 대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다	72	12.6	1	1.05
그저 그렇다	264	46.2	34	35.79
있다	236	41.3	60	63.16
전체	572	100.0	95	100

〈표 17〉의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들이 받았던 이용자교육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두 대학 모두에서 긍정적인 답변(약 41%와 63%)이 부정적인 답변(약 13%와 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들 대학도서관의 교육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교육

참여자가 약 46%와 36%에 이르는 점은 두 대학도서관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녹녹치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sup>35)</sup> 그렇다면 약 46%와 36%에 이르는 ‘관망 그룹’과 약 13%와 1%에 이르는 ‘불만 그룹’은 기존 교육프로그램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 참여자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갖고 있는 아쉬움의 실체를 정리해 놓은 <표 18>의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표의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가장 큰 아쉬움은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그 뒤를 이어 교육프로그램의 방법과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sup>36)</sup> 이처럼 비록 특정 대학도서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불과하지만, 이 결과는 대학도서관들이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무엇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지에 관한 단초를 제공한다.

<표 18> 도서관 교육프로그램에서 아쉬운 항목 (복수응답)

항목	P 대학		U 대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로그램의 내용	144	35.0	13	37.1
프로그램의 방법	122	29.7	7	20.0
프로그램의 강사	28	6.8	0	0.0
프로그램의 시간	95	23.1	12	34.3
프로그램의 환경	22	5.4	3	8.6
전체	411	100.0	35	100

## V. 결론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현장 사서들이 활용할만한 실효적인 가이드라인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의 근거에는 현장 사서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면 국내 대학도서관의 환경적 요소와 실무적 변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 이

35) 2개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참여자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인식과 평가는 사대도협외의 조사에서 사서들이 응답한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앞서 논의했던 사대도협외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활용교육’에 대해 교육 참여자의 71%가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각주 20 참고)

36) 그러나 상대적으로 강사나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대학도서관의 경우에 교육 전담 사서가 배치되어 있으며 실습 장비를 갖춘 전용 강의실을 이미 구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용자교육이 발전해온 과정과 특징을 통시적으로 조망하면서 이용자교육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한계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논의를 위해 기존하는 관련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보다 실질적인 데이터의 확보를 위해서는 20개 대학도서관을 사례로 삼아서 홈페이지에 대한 조사와 교육주체(사서)와 교육대상자(학생)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논의의 초점은 2017년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에서 두드러지는 외형적 속성과 내면적 실태를 파악하는데 두었다. 구체적으로, 외형적 속성에서는 이용자교육의 빈도와 참여율, 이용자교육의 종류와 주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내용적 실태에서는 이용자교육에 대한 교육주체(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과 교육대상자(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인식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 연구에서 밝혀낸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특징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교육의 빈도와 참여율은 사서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교육의 비중이 점차 증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용자교육의 종류와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이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과 자료이용교육을 넘어 주요 서지DB에 대한 검색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어서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이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내용적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였다. 셋째, 이용자교육 전담 사서들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가운데, 일반 사서들의 이용자교육 참여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현행 이용자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이 지금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조사에 참여한 사서의 약 67%는 이용자교육의 주체로서 지속적인 참여 의사가 있음을 피력할 정도로 이용자교육에 대해 관심이 컸다. 여섯째, 이용자교육을 위한 업무역량으로 사서들은 이론적인 요소보다는 실무적인 요소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동일한 맥락에서 사서들은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도서관계의 직무교육에서도 현장 적용이 가능한 체계적인 실무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직무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자교육에 대한 피교육자의 평가에서는 조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현행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을 피력하여서 사서들의 긍정적인 인식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적지 않은 한계와 보완점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용자교육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소수의 대학도서관을 사례로 삼아서 한정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특히 이용자교육의 대상자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극히 일부 대학에 조사를 한정하다보니, 국내 대학도서관계에 내재해 있는 보편적인 특징과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의 전반적인 추이와 현황 그리고 특징은 기존의 이용자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뿐 아니라, 대학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의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부필, 1970. 『한국대학도서관학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혜영, 1981.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이용지도에 관한 연구. 『도서관』, 36(5): 34-44.
- 김경미, 2002.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활성화 방안: 교수·사서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3: 97-115.
- 김대형, 1986. 『대학에서의 도서관 이용자교육 형태에 따른 효율성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김령은, 이제환, 2017.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의 특징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83-112.
- 김병주, 1998.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의 발전경향 연구-미국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9: 137-152.
- 김성진, 1989. 『학부교양과목으로서의 도서관 이용법교육과 도서관 이용과의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나성실, 1972. 『대학교양과정에 있어서 도서관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나성실, 1976. 대학교육 개혁과 도서관교육의 의의. 『도협월보』, 17(1): 24-29.
- 박남진, 2000.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형태에 따른 교육적 효율성 비교분석: 경기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신숙원, 1977. 도서관과 문헌 이용 지도: 대학 정규과목으로서의 필요성. 『도협월보』, 18(1): 14-19.
- 안영주, 1965. 『한국에 있어서 대학도서관봉사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 이영자, 1976. 미국 대학도서관 이용지도의 발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 51-78.
- 이제환, 2011. 한국 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 현황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3-27.
- 이지영, 2015. 『대학도서관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장혜란 역, 2014. 『참고정보서비스론』. 서울: 조은글터.
- 최은주, 1989. 미국 대학도서관에서의 서지교육의 동향에 관한 고찰. 『경대학교 논문집』, 23: 63-88.

- 채명자. 1997.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2017. 대학도서관의 비교과과정 정보문해교육 사례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사대도협 연구보고서』, 17: 1-178.
- 황미연 외. 1993. 도서관 이용지도의 모형개발: 시청각자료를 중심으로. 『국립대학도서관보』, 11: 176-190.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Ryoung-Eun and Jae-Whoan Lee. 2017. "A Literature Review on User Instruction of Korea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83-112.
- Kim, Byong-Ju. 1998. "A Study on Changing Trends of Bibliographic Institution of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ograph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9: 137-152.
- Lee, Young-Ja. 1976. "The Development of Academic Library Instruction in Americ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2: 51-78.
- Lee, Jae-Whoan. 2011. "User Education in Korean Libraries: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3-27.
- Lee, Ji Young. 2015. *A Study on Improvements for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Program in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Thesi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 Choi, Eun-Ju. 1989. "A Study of Bibliographic Instruction in American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yonggi Univeristy*, 23: 63-88.
- KERIS.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Analysis of University Libraries' Statistics*. Seoul: KERIS.
-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y Libraries. 2017. *KAPUL Research Report no.17: Analysis of Case and Activating Plan for Information Literacy in Korean University Libraries*. Seoul: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y Libraries.